

코로나19 이후 직업의 미래

본고는 맥킨지(McKinsey Global Institute)에서 발간('21.2)한 'The future of work after COVID-19'를 KISTEP 전문가가 분석·정리한 브리프임

('21.4.19, 혁신전략연구소 이정재)

1 코로나19로 인한 직업변화 특징

■ (직업의 물리적 측면의 중요성 부각)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동료 및 고객과의 근접성, 대인 간 상호작용 등 직업의 물리적 속성*이 일자리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부각

* 직업의 5가지 물리적 속성 : 동료 및 고객과의 근접성, 인적 상호작용 빈도, 상호작용의 특징(소규모 동료 간, 변화하는 고객 간 등), 업무 수행 공간의 실내 여부, 업무 현장의 필요성 여부

※ 8개국(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에서 2030년까지 1억 명의 직업 전환 가능성

- 코로나19는 현장 고객 서비스, 여가 및 여행 분야 등 물리적 근접성이 높은 직업군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고객과 대면 상호작용이 없는 컴퓨터 기반 사무 분야*에서는 원격 근무 확대

* 선진국의 1/3 정도의 고용을 차지하는 직업분야 (8개국 기준 3억 명 정도)

- 반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거의 필요 없고 실외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야외 생산 및 유지 관리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영향이 제한적

* 중국, 인도의 경우 35~55% 종사, 반면 선진국에서는 15% 미만 종사

■ (직업/직무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증가

- 앞으로 원격 근무 및 가상 회의는 코로나19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보다 감소할 수 있으나 지속될 가능성이 큼*

* 생산성에 손실 없는 원격 근무만 고려할 때, 선진국 인력 중 약 20~25%가 3~5일/주 집에서 근무 가능

- 물리적 근접성이 높은 직무영역에서 자동화 및 AI 채택 가속화*, 전자상거래 및 기타 가상 거래가 급성장**

* 글로벌 설문 조사에서 800명의 고위경영진 중 2/3가 자동화 및 AI에 대한 투자 증대 예상(20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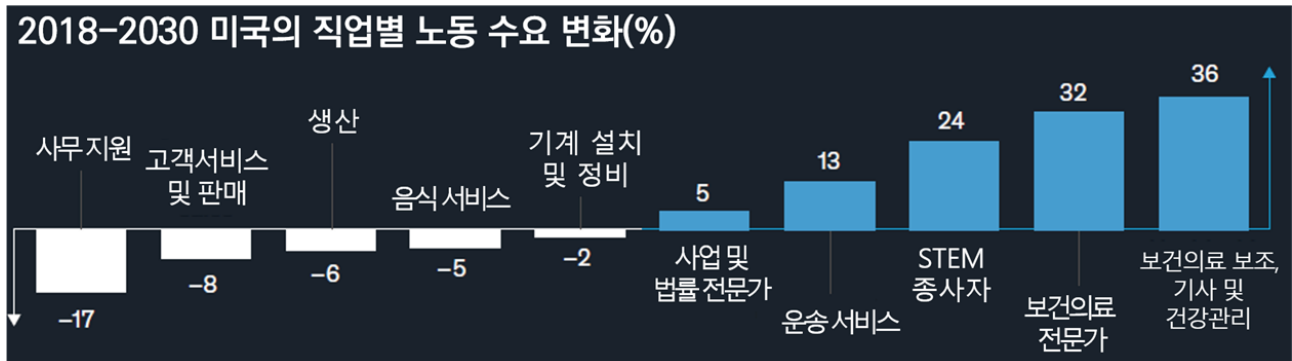
** 소매 판매에서 전자상거래의 점유율은 코로나19 이전 속도의 2~5배로 증가

■ (직업 전환 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 물리적 근접성 회피 등으로 인해 고임금 직업은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저임금 직업의 성장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상태로 변화

- 감소 중인 직업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술을 요구하는 높은 임금 계층의 직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추정*

* 2030년까지 코로나19 이전보다 12~25% 더 많은 근로자가 직업 전환이 필요

2 직업변화 전망 (2018~2030)



(자료원) McKinsey(2021), 재가공

▣ (일자리 증가) 의료,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운송 분야 등의 노동 수요가 순증가

- 고령화 및 소득증대에 따라 건강에 관한 관심 증가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개발, 배포·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의료 및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직종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코로나 19 이전보다 더 증가
- 전자상거래와 배송 경제의 성장으로 배달 및 운송 분야 일자리의 증가
* (미국) 2030년까지 운송 분야에서 80만 명 정도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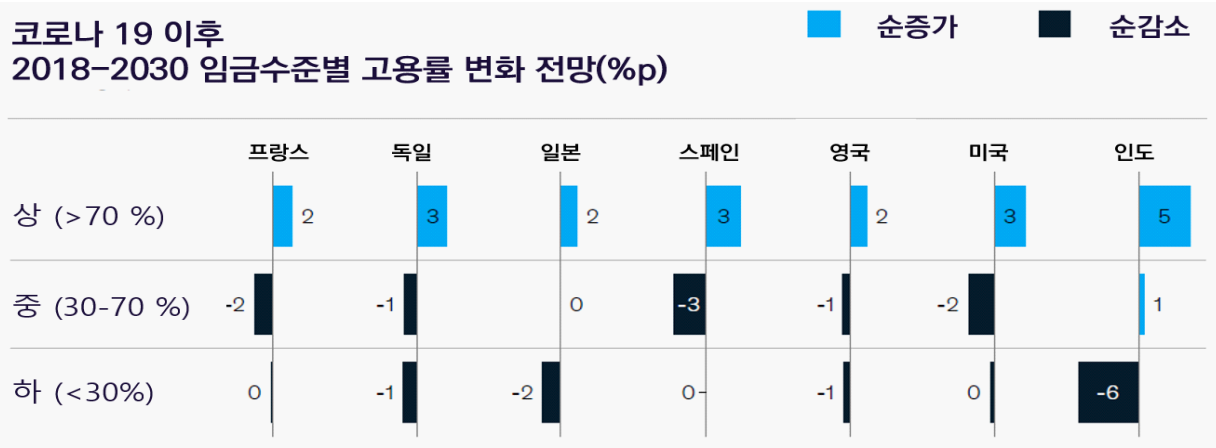
▣ (일자리 감소) 사무 지원, 고객 서비스 및 판매, 생산, 음식 서비스 분야 등에서 노동 수요가 순감소

-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무 지원 분야에서의 노동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
- 물리적 근접성이 높은 고객 서비스와 음식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지속 감소
* (미국) 2030년까지 고객 서비스와 음식 서비스 분야에서 430만명 감소 전망 (운송 분야의 순증가 대비 큰 규모의 감소)

▣ (새로운 F형 일자리 지형의 등장) 국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코로나19 이전 K형과는 다른 형태의 직업 조합이 등장 (붙임 1. 국가별 직업 조합의 변화 참조)

- 코로나19 이전에는 일자리 감소는 주로 자동화로 인한 제조업 분야의 중임금 일자리에 집중되고, 고임금과 저임금의 일자리는 지속 증가(K형)한 반면,
- 코로나19 이후에는 일자리 감소는 고객 서비스, 제조, 음식 서비스 등 저임금과 중임금 일자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 순 일자리 증가는 대부분 의료업, STEM 등 고임금 일자리에 국한(F형)

코로나 19 이후
2018-2030 임금수준별 고용률 변화 전망(%p)



(자료원) McKinsey(2021), 재가공

3 시사점

■ 일자리 변화 및 디지털 전환에 개인과 조직이 큰 충격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및 기반 확대

- 평생학습이 단순 캐치프레이즈가 아닌 현실이 될 시대에 직업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계속 교육체계 확대*

* 직업 전환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온라인 교육·경력개발 플랫폼 확대, 지원 제도·환경 구축 등

※ 많은 대기업에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직원의 상향 직업 전환을 위한 내부 아카데미 운영

- 원격 근무, 깃(gig) 플랫폼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제도·환경의 선제적 정립

※ 기업은 인재 활용성 확대, 직원 만족도 제고, 부동산 비용 감소 등을 위한 하이브리드 원격 업무 전략 고안 중

- 디지털 전환 및 온라인 경제에서 교육 및 취업 기회를 상실하는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인프라 확장

■ 미래 성장 직업과 연계하여 STEM 관련 교육 강화 및 청소년 진로교육 확대

- 향후 일자리 증가가 전망되는 직업에서 STEM 관련 지식 및 역량은 더욱 중요한 기반이 되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강화 및 진로 정보 제공

■ 코로나19 위기에서 일자리 위치의 새로운 가치를 인식하고, 지역 성장 전략과 연계

- 원격 근무 확대는 대도시를 벗어난 소규모 도시와 지역에서 주민들을 유치하고 지역 성장을 활성화할 새로운 기회

[참고문헌]

McKinsey(2021.2), 「The Future of Work after COVID-19」, McKinsey Global Institute.

붙임 1 국가별 직업 조합의 변화 (2018~2030)

코로나19 이후

2018-2030 총 고용 비중의 변화 전망(%p)

비중 증가 비중 감소

직업군	선진국					신흥국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	중국	인도
보건의료 보조, 기사 및 간병인	1.6	1.9	1.4	1.5	1.4	2.2	2.7	1.0
보건의료 전문가	0.8	0.7	0.9	1.0	0.7	1.2	1.3	0.5
창작 및 미술경영	0.5	0.4	0.4	0.5	0.4	0.2	0.4	0.5
STEM 전문가	1.0	1.2	1.0	0.9	1.0	1.0	1.2	0.8
경영	0.7	0.6	0.4	0.7	0.9	0.6	0.5	0.6
운송 서비스	0.3	0.6	0.1	0.3	0.1	0.3	0.9	0.4
사업 및 법률 전문가	0.3	0.3	1.1	0.5	0.3	0.2	1.1	0.8
지역 봉사	-0.3	-0.1	0.1	-0.1	-0.3	-0.2	0.8	0.2
건축업	-0.3	0.0	-0.2	-0.3	-0.3	-0.1	0.1	1.0
교육 및 인력양성	0.0	0.4	-0.1	0.0	0.2	-0.1	0.4	0.7
자산관리	0.4	-0.2	-0.2	0.0	-0.2	0.1	0.5	-0.4
음식 서비스	-0.6	-0.3	-1.1	-1.6	-0.7	-0.7	0.5	0.7
고객 서비스 및 판매	-0.9	-1.9	0.2	-0.5	-0.8	-1.1	1.3	0.3
기계 설치 및 정비	-0.2	-0.2	0.0	-0.2	-0.1	-0.2	-0.1	0.5
사무 지원	-2.1	-2.3	-2.2	-1.4	-2.2	-2.6	0.3	0.3
생산 및 창고업	-1.0	-1.0	-1.7	-0.9	-0.3	-0.7	-3.8	1.0
농업	-0.2	-0.3	-0.3	-0.4	0.0	-0.1	-8.0	-8.9

(자료원) McKinsey(2021), 재가공